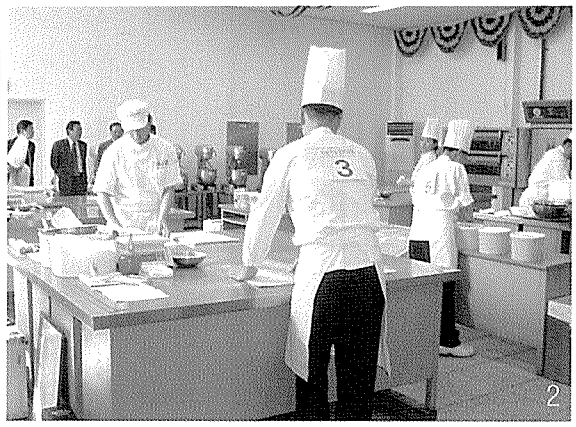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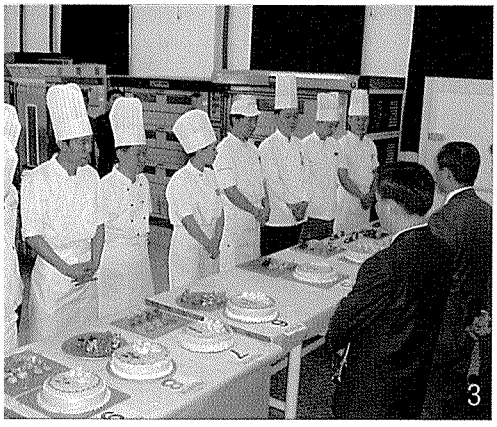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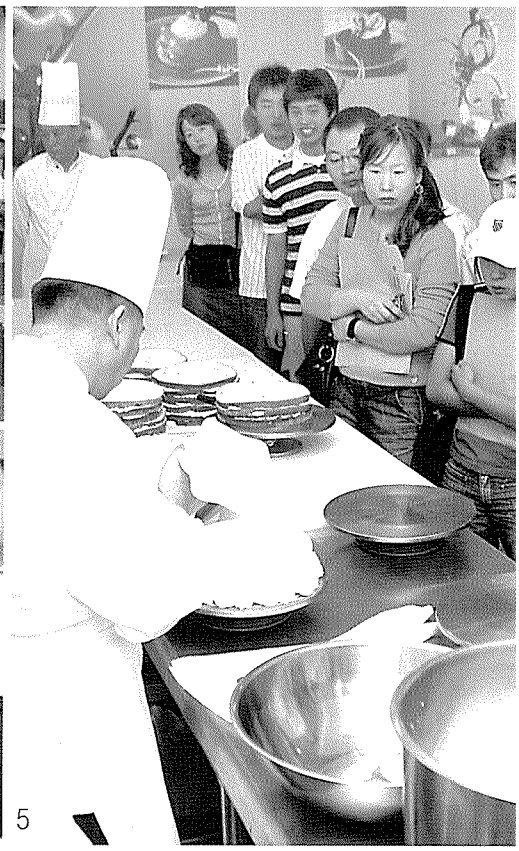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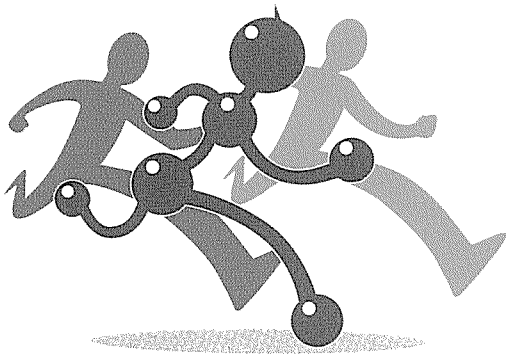

3

4


5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힘찬 도약

지방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 직종 시범종목 첫 실시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제40회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제과제빵 직종이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실시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 대회에 40년 만에 제과제빵 직종이 참여하게 된 것은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글_박소희 기자 · 사진_전문식 · 사진 자료 제공_한국제과학교

2005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53개 직종 중 제과제빵이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120명이 신청, 84명이 참가해 대회를 치루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사 시험면제의 특전과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된 선수들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총 14회 종합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기능 발전의 산실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다.

제과제빵 직종은 이미 1999년도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되어 2001년 대회에서 서영훈 선수가 4위에 입상한데 이어 지난 2003년 대회에서 김영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국기능대회에 제과제빵 직종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왔다. 김영모 회장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제과제빵 직종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인데도 정작 40회 동안 개최된 전국기능대회에서 제과

1,2,3 한국제과학교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참가규정에 맞춰 실기 시험을 치뤘다. **4** 지난 2004년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 공예 특별 전시관 내에 (사)대한제과협회에서 마련한 제과제빵 홍보관을 마련해 시범종목 경기에 앞서 제과제빵 기술의 발전된 모습과 정식종목 채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5** 전라북도 기능장과 기술인들이 진행한 케이크 시연 및 시식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일반인들에게 제과제빵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6** 2005년 프랑스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 대표 선수 최인호 씨가 초콜릿 공예 작품을 정성들여 제작했다. **7,8** 2004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에 참가했던 김영훈 · 정영택 씨가 설탕공예를 시연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빵 직종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제과협회 회장으로써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일반인들에게 제과제빵 직종을 알리고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제과제빵 선수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제과제빵 직종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갈 공신력 있는 선수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소견을 밝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과제빵 직종 채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협의작업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3년 12월에 발표된 기능경기대회 직종 신설 · 개편 안내에서 2005년 전국기능대회부터 제과제빵 직종이 당당히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뿐만 아니라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004년 전북 제39회 전국기능대회에 제과제빵 직종으로 시연 종목에 참가해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홍보를 벌여 대회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일반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범경기에 앞서 제과제빵 기술의 발전된 모습과 정식종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 (사)대한제과협회가 우수 공예 특별 전시관 내에 마련한 제과제빵 홍보관에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회 관계자 및 지역 기술인, 라스베이거스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 한국 대표 선수들과 프랑스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 대표 선수들, 슈거 아트 전문가 이종열 씨 등이 참여해 제과제빵 기술의 발전된 현주소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설탕공예 작품과 슈거크래프트 및 파스티야주 등의 공예 작품 제작 전시, 생크림 케이크 시연회 및 시식회, 제과제빵 체험 행사 등 다채롭게 마련된 행사를 통해 일반 관객은 물론 전국에서 온 대회 관계자들이 제과제빵 직종의 발전된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서 제과제빵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데 성공했다.

2005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제과제빵 직종이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1,2위 입상자는 대전에서 열리는 2005년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각 시 · 도 대표선수로 참가하고 2005, 2006년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평가전을 거쳐 2007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직종은 1년에서 3년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친 다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지방경기대회 1, 2위 선수에게만 주어지던 전국경기대회 출전자격이 1, 2, 3위 선수에게 확대되며 시범종목 상금의 2배로 국내 대회 중 최고 상금 1위 금메달 및 1천200만 원, 2위 은메달 800만 원, 3위 동메달 400만 원, 장려상 상금 50~100만 원 등이 주어지며 우수 선수 배출기관에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지금까지 (사)대한제과협회에서 도맡아왔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선수를 결정하기 위해 훈련원생을 선발, 훈련시키는 등의 모든 관련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일임하게 된다.

제40회를 맞이하는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제과제빵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 동안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제과제빵 직종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날까지 제과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를 기대한다.